



온도계와 조절기의 역할

부화기를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도를 조절하는 기구이다.

부화율이 높고 튼튼한 병아리를 생산하려면 우선 종란이 좋아야 하지만 그외에 부화기에서 온도, 습도, 환기, 전란 등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최적 온도의 유지가 생명이다. 60년대의 부화기는 에텔을 이용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원이 끊어지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히터에 불이 들어와

온도가 올라갔으나 편차가 상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은온도계에 직접 조절기를 연결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되었는데 전자산업의 발전은 각종 조절기의 기능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게 되었다. 지난달부터 육계값이 폭락해서 육계사육업자의 어려움이 대단하다.

육계업자를 대별하여 보년 온도계와 같은 업자와 조절기와 같은 업자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육계값을 온도에 비유 한다면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환경과 여건에 그저 온도계처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만다. 전혀 조절기능이 없어 새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비교적 이통계 저통계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입추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이는 마치 60년대초 시기를 맞추어 봄철과 가을철 잠깐 부화를 하던 때와 유사한데 산업으



「월간 양계」가 창간 17주년을 맞이 하였다. 그 간 월간양계는 온도계처럼 그저 우리 업계의 온도를 몇도라고 나타내는 일에 노력하여 왔는지 아니면 조절기로서 업계의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더 힘을 쏟아 왔는지를 뒤돌아보며 반성한다. 언론을 사회의 거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온도계처럼 있는 그대로를 몇도라고 나타내면 임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월간양계」의 입장이다.

앞으로는 「월간양계」가 온도계의 역할보다 조절기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하여는 독자에 전원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조절의 기능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조절기의 기능이 미약하지만 새로운 제도적 보완으로 그 기능은 큰 폭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끝없는 비극적경쟁

로 성장할 수도 발전하기도 힘들다.

끝으로 조절기의 역할을 하는 양계인이다. 년중 가격을 어느 적정 온도로 맞추고 이를 유지하는 조절기를 만들어 놓자는 것인데 극소수의 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른 말로하면 이 조절기를 제 열화라고 부를 수 있다. 조절기가 좀 구식이면 온도의 편차가 크겠고 최신 전자시스템이면 편차가 거의 없이 온도(가격)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에 조절기를 달아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부화기에 조절기가 없이 온도계만 있어서는 부화가 안되기 때문이다. 생산조절, 공급조절, 소비조절을 하는 조절기가 우선은 성능이 예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달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계는 혼자 스스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지만 조절기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조절기로서의 작동을 할 수 있다. 에너지원에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제 1서기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에서 예비 미소 정상 회담을 가졌다. 신문들이 이번 회담에서 군비축소 문제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 보도를 한데 비하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다고 한다.

전세계 국가가 하루 사용하는 군비의 절반만 가지고도 이 지구상에서 마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보아도 군비경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다. 탱크 한 대 값이면 50만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소가 서로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이미 있는 것도 감축 하므로써 그 돈을 평화산업에 쓰자는 데는 전적으로 뜻이 같은데도 잘 안되고 있다. 역시 상대방 보다는 군사력이 약간 우위에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인가 보다. 또 군축문제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상호감시 문제이다. 약속대로 실제로 감축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무기를 줄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몰래 생산해서 공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최근 사료곡물 가격이 폭락해서 배합사료 가격도 앞으로 더 하락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도산하는 양계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육계는 과잉생산으로 닭값이 폭락을 하였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과잉 생산을 막아보기 위하여 부화업자들이 모여서 생산조절 문제를 열심히 토의 한다.

한때는 생산조절을 위해서 부화장의 대표적인 GPS농장들이 회담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조절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 입란을 조절하자는 의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래전에 한번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었지만 상호감시에 문제가 있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몰래 뒤로 부화한 사람이 금전적으로는 큰 이익을 본적이 있었다. 제도적으로 생



산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전에는 합의에 의한 생산조절이란 미소간에 군비감축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도 재확인 되었다.

「월간양계」 창간 1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양계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국 일동 —